

李漁의 服裝論 小考

— 《閑情偶寄·聲容部》의 <治服>을 중심으로

박성훈*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의복에 대한 안목의 중요성
 - 2.2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성: 衣以章身
 - 2.3 의복 착용의 원칙과 추구
3. 결론

1. 서론

李漁¹⁾는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태어나 청나라 초기까지 활동한 劇作家로 유명하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자신들에게는 李漁가 있다고 중국인들은 이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극작가이면서도 연출가로도 활동하였으며, 자신들의 家姬들을 중심으로 女性劇團을 조직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의 희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1) 李漁는 明萬曆三十九年(1610 또는 1611년)에 출생하여 淸康熙十九年(1680년)에 죽었다. 이름은 仙侶였고 字는 謫凡, 號는 天徒였다. 後에 이름을 漁로, 字를 笠鴻, 號를 笠翁으로 바꿨다. 隨庵主人·伊園主人·覺道人 등의 많은 別號를 가지고 있었다. 藥房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은 비교적 부유하게 보냈다. 그러나 두 차례 과거에 실패하고 淸나라의 침입으로 가세가 기울자 처음에는 청나라에 반대하여 은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후에 삶을 영위하기 위해 幫閑文人이 되어 희곡을 창작하고, 자신의 家姬를 중심으로 劇團을 조직하였고 직접 劇을 공연하며 생활을 영위하였다.

곡작품을 공연하였다. 자신의 창작경험과 실제 공연 활동을 바탕으로 희곡이론을 집필하였는데, 자신의 수필집인 《閑情偶寄》²⁾ 속의 <詞曲部>와 <演習部>의 항목 속에 남겨져 있다. 오늘날까지 극작가로서의 명성으로 인해 《한정우기》의 <사곡부>와 <연습부>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왔지만, 《한정우기》 속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聲容部>는 여성의 화장과 치장을 비롯하여 복장, 기예 등등에 많은 편목을 할애하여 자신의 여성에 대한 美意識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가 여성에 대한 견해와 심미관을 서술한 것은 자신의 희곡 활동 및 가정생활과도 관계가 깊다.³⁾ 극단주이면서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여성단원을 선별하고, 기예를 가르치고 용모를 치장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에 대한 견해와 심미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어 작품 속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정우기》에 서술된 여성관과 일치된 면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런데 필자가 이어의 희곡이론을 연구하는데 그의 結構論에서 스토리의 구성과 관련하여 바느질을 비유로 삼아 서술한 부분이 있었다. 《한정우기·사곡부》의 <結構第一>의 세부항목에 ‘密針線’이란 부분인데, 내용은 희곡의 스토리 구성을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극을 쓰는 것은 옷을 봉제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온전한 옷감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중에 다시 잘라 놓은 옷감들을 바느질하는 것과 같다. 옷감을 자르는 것은 쉬워도, 그것들을 바느질하여 옷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바느질의 공력은, 오로지 바느질의 긴밀함에 달려 있어서, 한 뚝이라도 빠지면, 전체 옷에 흠집이 노출 된다”⁴⁾ 등등. 필자는 이어가 자신의 희곡이론을 바느질에 비유할 정도로 복장에 대해서도 깊은 견해와 심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려 된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이어의 《한정우기·성용부》의 <치복>을 바탕으로 그의 복장에 대한 인식과 착용 원칙을 살펴보았다.⁵⁾ 본 연구는 이어

2) 1671년 이어가 61세인 淸康熙十年에 출간되었다.

3) 줄고, 《李漁의 女性觀 小考》, 《中國文化研究31輯》, 2016.02.

4) 李漁 著, 《閑情偶寄·詞曲部》, <結構第一·密針線>, 11쪽. 浙江古籍出版社, 1999.3. “編戲有如縫衣, 其初則以完全者剪碎, 其後又以剪碎者湊成. 剪碎易, 湊成難, 湊成之工, 全在針線緊密. 一節偶疏, 全篇之破綻出矣.”

5) 이어의 복장론에 대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로 장신구, 화장법, 치장법과 관련하여 복식론

의 복장론을 연구하면서 그의 희곡이론들과 복장에 대한 견해를 상호 비교하는 데는 중점을 두지 않았으며, 일차적으로 그의 복장에 대한 견해와 착용 원칙에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

2. 본 론

《한정우기·성용부》의 <치복>을 살펴보면 이어는 옷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와 심미관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실제로 생활하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수립한 것으로 사려 된다. 역사적으로 明末淸初시기 유행했던 옷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으며, 올바른 안목과 이해를 바탕으로 옷을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경지에서 향유하는 방법과, 옷과 사람과의 조화, 옷의 색채와 유행 등에 대한 심미관을 밝히고 있다. 그는 먼저 옷에 대한 안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1 의복에 대한 안목의 중요성

옛 말에 이르기를: “三代의 長子는 옷 입는 것을 알고, 五代의 長子는 먹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세속에서 이르기를: “삼대에 벼슬을 하면, 의복을 입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였다. 옛 말과 지금의 말이, 서로 뜻이 일치하니, 입고 먹는 두 가지 일의 어려움을 가히 볼 수 있다. 음식에 관한 것은 다른 책에서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으며,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古云: “三世長者知被服, 五世長者知飲食。”俗云: “三代爲宦, 着衣吃飯。”古語今詞, 不謀而合, 可見衣食二事之難也。飲食載于他卷, 茲不具論, 請言被服一事。)⁶⁾

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필자는 의복에만 치중하여 집중적으로 의복에 대한 관념과 착용원칙을 다루었다. 李玉婷·李靜의 <試論李漁《閑情偶寄》衣衫中的服裝觀點> (2012)이나 李勝淸·謝曉蘭의 <由《閑情偶寄》看李漁的服飾美學觀> (2012) 참조.

6) 전계서, <髻容部·治服第三>, 118쪽.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이어의 옷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의복은 사람의 피부처럼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먼저 “삼대에 벼슬을 하면, 의복을 입고 밥을 먹는다”라는 말은 벼슬을 하면 의식(衣食)에 대한 경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언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벼슬을 하면 먹고 입는 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어의 언급은 그 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衣食에 대한 경제적인 만족을 얻는데 三代나 五대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三代나 五대의 의미는 衣食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한 시간으로 생각된다. 즉 三代를 거친 長子나 三代에 이어 벼슬을 하여야 비로소 옷 입는 것에 대한 올바른 안목(眼目)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옷에는 색깔과 도안과 양식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세월을 거치면서 새롭게 변화한다. 의복은 우리 생활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문화적 요소의 축적이며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옷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나 여러 양식과 요소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어려운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는 의복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물질적 만족을 넘어 예술적 경지의 추구하고 향유를 언급한 것이다. 옷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안목 없이 단순하게 선택하고 착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빈천한 집안의 사람은, 스스로 남루한 차림의 옷을 부끄러이 여겨, 매번 옷을 장만할 돈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다가, 어느 날인가 출세하게 되면, (자신의 집안)남자는 멋스럽게 가죽 옷을 입고 말을 탈 것이고, (집안의)여인네는 빼어나게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사람의 몸에 옷을 착용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 어느 지역(땅)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은 그 지역과 익숙해지고, (그 곳에서)오래 지내야 비로소 서로 편하게 된다. 지극히 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갑자기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이 입게 되면, 옷은 또한 생소한 사람이, 늘 (새로운)지역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란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 넓은데 좁은 것 같고, 짧은데 길다고 의심되며, 손을 내놓고자 하나 소매가 덮어버리고, 목은 내밀어야 하는데 옷깃이 굽어지게 한다. 옷이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 마치 그 몸에 칼과 족쇄를 착용한 것 같다. 원숭이가 모자를 쓰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원숭이가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

라, 모자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원숭이의 머리와 모자가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寒賤之家, 自羞襤褸, 動以無錢置服爲詞, 謂一朝發迹, 男可翩翩裘馬, 婦則楚楚衣裳。孰知衣衫之附于人身, 亦犹人身之附于其地。人與地習, 久始相安, 以極奢極美之服, 而驟加儉朴之軀, 則衣衫亦類生人, 常有不服水土之患。寬者似窄, 短者疑長, 手欲出而袖使之藏, 項宜伸而領爲之曲, 物不隨人指使, 遂如桎梏其身。“沐猴而冠”爲人指笑者, 非沐猴不可着冠, 以其着之不慣, 頭與冠不相稱也。)7)

인용문에서 이어는 옷에 대한 안목과 향유는 세월의 적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옷을 착용하는 것은, 마치 어느 생소한 지역의 풍토에 적응하는 것과 같다”는 그의 비유는 옷에 대한 깊은 안목을 엿볼 수 있다. 단순히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사람과의 어울림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풍토와 문화에 익숙해지면 생활이 편안해지듯이, 옷의 착용 역시 습관이 되고 익숙해 져야 편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숭이와 모자의 예처럼 옷의 착용은 익숙함과 더불어 또한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옷을 향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할 수 있다. 이어의 이러한 주장은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식성을 간과한 점도 있어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옷에 대한 깊은 안목이 필요하며,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예술적인 향유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체험처럼 오랜 세월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성: 衣以章身

우리는 왜 옷을 입으며,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옷을 착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옷을 입었지만, 인류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문명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벗어나, 옷에 색깔과 문양과 각종 양식이 더해져서 문화적 가치가 가미되었다. 자신들의

7) 전계서, 118쪽.

취향에 따라 옷을 선택하고, 옷의 유행은 변화하고 있다. 착용한 옷에 따라 사람에 대한 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착용한 옷이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성은 매우 미묘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옷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이어는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옷으로써 자신(身)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衣以章身),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章은 드러낸다는 것인데, (옷의)화려한 색채와 도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身은 형체의 몸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 현명함과 불초함이 실제로 몸에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부귀는 집안을 운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운택하게 한다”는 몸과 같다. 동일한 옷도, 부유한 자가 입으면 그의 부유함이 드러나고, 가난한 자가 입으면 자신의 가난함이 더욱 드러난다. 귀인이 입으면 그의 귀함이 드러나고, 천한 사람이 입으면 자신의 천함이 더욱 드러난다. 덕행이 있는 현명한 사람과 품재가 없는 못난 사람이, 그 옷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이와 같다. (“衣以章身”, 請晰其解. 章者, 著也, 非文采彰明之謂也. 身非形體之身, 乃智愚賢不肖之實備于躬, 猶“富潤屋, 德潤身”之身也. 同一衣也, 富者服之章其富, 貧者服之益章其貧; 貴者服之章其貴, 賤者服之益章其賤. 有德有行之賢者, 與无品無才之不肖者, 其爲章身也亦然.)⁸⁾

인용문에서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어는 몸(身)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몸이란 단순히 사람의 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어리석음, 현명함과 불초함의 품성이 갖추어진 인격체를 의미한다. 사람의 표면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품성과 신체가 어우러진 모습을 뜻한다. 부귀한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 운택함을 느낄 수 있듯이, 올바른 품성과 덕행을 갖춘 사람(身)의 행동거지는 분명 사람들에게 홀륭하고 빛나게 보일 것이다. 이어는 옷을 입은 자의 품행과 덕행이 그 사람의 전체 형상의 모습을 제약하며, 입은 옷을 통해 자신의 품성과 덕행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람과 의복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우선이란 관점이

8) 전계서, 118쪽.

다. 이 때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형태의 신체가 아니라 품성을 갖춘 육체와 정신이 어우러진 인격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동일한 옷을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입으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더욱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옷은 사람의 외적인 시각형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내재적인 운치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며, 의복과의 관계성에서 사람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다.

큰 부자가 이곳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 형질 조각으로 기워진 옷을 입고, 발꿈치가 드러난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의)일종의 부유한 기상은, 저절로 옷과 신발 밖으로 흘러나오니, 묻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헤치고 때 묻은 옷을 입어도, 또한 능히 사람의 부귀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무늬와 수놓은 비단 옷에 있어서야! 거지와 채소 농사짓는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훔쳐 입으면, 왕왕 그 옷으로 인하여 화를 당하는 것은, 입은 옷으로 인해 빈천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니, 짧고 거친 베옷을 입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긴 옷설의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다. 부귀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한다는 해석은, 또한 역시 이와 같다. 부귀한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그림이 그려진 마룻대와 조각이 된 들보(호화로운 건물)가 아니라도, 설령 몇 간 안 되는 초가집에 살아도, 그 집 문을 지나, 그 방으로 향하는데, 보잘 것 없는 쉼나무의 문과 구멍 난 담장을 지나는 사이에도, 항상 자연스레 일종의 왕성한 기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이른바 윤택하다는 의미이다. 공경과 장상이 죽은 후, 자손이 쇠미해지면, 사는 집에, 일찍이 손대고 고친 것이 없어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냉기가 침입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 이 가문이 쇠락하여, 윤택함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設有一大富長者于此, 衣百結之衣, 履踵決之履, 一种豐腴氣象, 自能躍出衣履之外, 不問而知爲長者。是敝服垢衣, 亦能章人之富, 况羅綺而文綉者乎? 丐夫菜佣窃得美服而被焉, 往往因之得禍, 以服能章貧, 不必定爲短褐, 有時亦在長裾耳。“富潤屋, 德潤身”之解, 亦復如是。富人所處之屋, 不必盡爲畫棟雕梁, 卽居茅舍數椽, 而過其門、入其室者, 常見壘門主竇之間, 自有一种旺氣, 所謂“潤”也。公卿將相之后, 子孫式微, 所居門第未嘗稍改, 而經其地者, 覺有冷氣侵入, 此家門枯槁之過, 潤之無其人也。)9)

9) 전계서, 118-119쪽.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어의 관점에 동의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다소 극단적인 면도 있다. 거지나 농부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의복은 사람을 꾸며주고 돋보이게 하는 고유의 장식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어는 의복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의 제약이 존재하는 봉건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양식과 종사하는 일에 따라서 행동거지나 복장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이러한 관점을 갖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어의 해석은 문화적 수양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부귀한 사람은, 소박한 옷을 입어도, 부귀한 기상이 있으며, 설령 아무런 장식이 없는 초가집에 살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왕성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람이나 집에 있어서 외적인 장식이나 조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인 면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체이며 옷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며, 사람이 옷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옷의 아름다움은 옷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주체는 옷을 입는 사람에 있다는 것이다. 옷의 아름다움은 그 근거와 귀결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있으며, 사람이 옷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없다면 옷의 아름다움을 논할 수도 없고, 옷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는 의복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주체적 결정과 주도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2.3 의복 착용의 원칙과 추구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이어는 옷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의복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 보호하는 것 외에도, 깊은 문화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착용하는 사람의 내적인 기질에 의해서 그 착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한정우기》의 <치복>의

<衣衫>에서 구체적으로 의복의 착용 원칙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3.1 의복은 용모와 서로 어울려야 한다(與貌相宜)

여인의 옷은 정교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결함을 귀중히 여긴다. 화려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고아함을 귀중히 여긴다. 집안에 걸맞게 입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용모와 어울리게 입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 수놓은 무늬비단의 옷이라도, 때가 묻어 더러워지면, 오히려 무명옷의 산뜻한 아름다움 보다 못하니, 이른바 정결함을 귀중히 하고 정교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붉은 자주 빛의 농염한 색채가, 시대와 유행에 어긋나면, 옅은 색깔의 적합함만 못하게 되니, 이른바 고아함을 중시하며 화려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한 집 여인은, 화려한 무늬 옷을 입는 것이 어울리고, 가난한 집안은, 흰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집안에 걸맞게 입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타고난 얼굴이 있고, 얼굴에는 어울리는 옷이 있으며, 옷에는 어울리는 색깔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일정하여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새 옷 한 벌을 가지고서, 젊은 여인 몇 사람에게, 차례로 입혀보면, 분명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얼굴색과 옷의 색깔이,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옷 자체가 사심이 있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다. 만약 귀한 집안 여인의 얼굴색이, 화려한 무늬와 어울리지 않고 흰 무명과 어울리는데, 한사코 흰 무명을 버리고 화려한 무늬를 택한다면, 얼굴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집안과 걸 맞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얼굴과 어울리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婦人之衣, 不貴精而貴潔, 不貴麗而貴雅, 不貴與家相稱, 而貴與貌相宜。綺羅文綉之服, 被垢蒙塵, 反不若布服之鮮美, 所謂貴潔不貴精也。紅紫深艷之色, 違時失尚, 反不若淺淡之合宜, 所謂貴雅不貴麗也。貴人之婦, 宜披文采, 寒儉之家, 當衣縞素, 所謂與人相稱也。然人有生成之面, 面有相配之衣, 衣有相配之色, 皆一定而不可移者。今試取鮮衣一襲, 令少婦數人先後服之, 定有一二中看, 一二不中看者, 以其面色與衣色有相稱, 不相稱之別, 非衣有公私向背于其間也。使貴人之婦之面色, 不宜文采而宜縞素, 必欲去縞素而就文采, 不幾與面爲仇乎? 故曰不貴與家相稱, 而貴與面相宜。) ¹⁰⁾

위 인용문에 제시된 이어의 견해를 보면 의복의 착용은 입는 사람의 용모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어가 의미하는 용모는 사람의 얼

10) 전계서, <治服第三·衣衫>, 122쪽.

굴이라 할 수 있다. 사람에게에는 타고난 얼굴이 있고, 얼굴과 맞는 옷과 옷 색깔이 있으며,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얼굴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관건이다. 동일한 옷을 여러 사람들이 착용했을 때, 어울림의 여부도 얼굴의 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교하고 화려한 옷도 얼굴빛과 어울려야 조화를 이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결하고 고아한 무명옷보다 못하게 된다. “여인의 옷은 정교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결함을 귀중히 여긴다. 화려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고아함을 귀중히 여긴다”라고 언급한 것은 정교하고 화려한 옷을 절대적으로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다. 의복이 만약 더러워지면 아무리 정교하고 멋있는 옷이라도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화려함만을 추구하여 고아함이 없는 옷도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어는 옷의 유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붉은 자주 빛의 농염한 색채가, 시대와 유행에 어긋나면, 옅은 색깔의 적합함만 못하다”라고 설명한 것은 시대와 유행의 변화에 따라, 옷의 색깔에 대한 기호도 변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대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그의 언급은 사람의 기호에 따른 옷의 유행은, 시대 속의 사회 규범에 따라 어떤 제약이나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는 옷은 사람의 용모와 서로 어울려야(與貌相宜)한다는 자신의 의복의 착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방법도 서술하고 있다.

2.3.2 의복은 체형 특징에 따라 맞춰 입어야 한다. (相體裁衣)

대저 얼굴색이 정말 희고 연하며, 체태(體態)가 지극히 유연한 여인은, 무슨 옷을 입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옅은 색의 옷은 그녀의 흰 얼굴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으며, 짙은 색의 옷도 그녀의 흰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정교한 옷은 그녀의 아리따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며, 재질이 거친 옷도 그녀의 아리따움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인은 국색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대략 생김새와 체태(體態)가 보통인 사람은, 응당 자신의 신체 특징에 따라 옷을 맞춰 입어야 하며(相體裁衣), 색상을 뒤섞어 쓰면 안 된다. 자신의 신체 특징에 따라 옷을 맞춰 입는 방법은, 변화가 다양하

여, 고정 불변의 방법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득불 그 요령을 말한다면, 그것에 근접한 특징을 쫓아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얼굴색이 비교적 희면, 옷 색깔은 짙은 색과 옅은 색이 모두 가능하다. 얼굴색이 검은색에 가까우면, 옅은 색은 적합하지 않고 짙은 색만이 적합하며, 옅은 색의 옷은 그의 검은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뿐이다. 피부가 비교적 세밀한 사람은, 옷의 재질이 정교하든 투박하든 모두 가능하다. 피부가 비교적 거친 사람은, 정교한 것은 적합하지 않고 투박한 것만이 적합하니, 정교한 것은 그의 거친 피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 대저 내가 말한 것은, 부귀하거나 가난한 집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대가집 규수에게는 상세히 설명하고 가난한 집안에게는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가난한 집안을 편애하거나 부자집 규수를 누락시킨 것도 아니다. (大約面色之最白最嫩, 與體態之最輕盈者, 斯無往而不宜。色之淺者顯其淡, 色之深者愈顯其淡; 衣之精者形其嬌, 衣之粗者愈形其嬌。此等即非國色, …… , 然當世有幾人哉? 稍近中材者, 即當相體裁衣, 不得混施色相矣。相體裁衣之法, 變化多端, 不應膠柱而論, 然不得已而強言其略, 則在務從其近而已。面顏近白者, 衣色可深可淺; 其近黑者, 則不宜淺而獨宜深, 淺則愈彰其黑矣。肌膚近膩者, 衣服可精可粗; 其近糙者, 則不宜精而獨宜粗, 精則愈形其糙矣。……凡予所言, 皆貴賤咸宜之事, 既不詳綉戶而略衡門, 亦不私貧家而遺富室。) 11)

인용문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용모와 서로 어울려야 한다(與貌相宜)”는 것이 衣服美에 대한 原則이라면 “신체 특징에 따라 옷을 맞춰 입어야 한다(相體裁衣)”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 특징은 얼굴형, 얼굴색, 체형, 피부, 키 등의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복의 착용법도 다양할 것이다. 李漁는 역시 이에 대해서 옷을 맞춰 입는 방법은 변화가 다양하고 고정된 방법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얼굴색과 옷의 색깔, 피부결과 옷감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요령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얼굴색과 옷의 색깔에 대한 방법은 얼굴색의 白과 黑에 따라 옷 색깔의 深과 淺을 구분해서 입는 것이다. 얼굴색이 희면 옷 색깔의 深淺을 구분하지 않아도 모두 어울리며, 얼굴이 검은 색이면 옅은 색의 옷은 어울리지 않고, 짙은 색만이 어울리며, 옅은 색의 옷은 검은 색의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옷과 사람사이에 조화의 美를 이룰 수 없게 된다. 두

11) 전계서, 122-123쪽.

번째는 피부결의 세밀함(細)과 거침(糙)과 옷감의 재질의 정교함(精)과 투박함(粗)의 관계를 고려해서 옷을 입는 방법이다. 피부의 결이 세밀한 사람은 옷감의 재질의 정교함과 투박함을 고려하지 않고 입어도 어울린다. 피부의 결이 거친 사람은 옷의 재질이 투박한 것만이 어울리며, 정교한 재질의 옷감을 착용하면 피부의 결과 상반되게 비교되어 거친 피부가 더욱 부각되어 옷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어가 이처럼 제시한 “相體裁衣”의 요령은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되는 색채의 대비 효과를 활용하여 조화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색깔이 있으며, 색깔은 각각 명도(明度)와 채도(彩度)를 가지고 있다. 명도는 색의 밝기를 채도는 색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어는 이러한 색깔의 배합을 통하여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얼굴이 비교적 검은 사람이 짙은 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검은 얼굴이 옷과 어우러져 검은 얼굴이 덜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피부의 살결과 옷감의 재질 역시 배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국 색채와의 배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얼굴색과 피부결, 옷의 재질과 색깔은 결국 함께 어우러져야 조화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타고난 얼굴색과 피부는 어쩔 수 없지만, 이어는 “相體裁衣”란 유행성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의복과 사람과의 조화의미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3 靑色 옷에 대한 추구

이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옷의 색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검은색에 남다른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靑색은 오묘함이 무궁하여, 일일이 다 셀 수가 없다. 여인에게 적합한 것만을 취하여 논한다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입으면,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보이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입으면, 얼굴이 검게 느껴지지 않으니, 이는 그것과 용모가 어울

려서이다. 젊은 사람이 입으면, 그 나이가 더욱 젊어 보이고, 늙은 사람이 입으면, 그 나이가 또한 심히 늙게 보이지 않으니, 이는 그것과 나이가 서로 어울려서이다. 빈천한 사람이 입으면, 빈천한 사람에게 걸맞고, 부귀한 사람이 입으면, 또한 사치스럽고 화려한 누습을 버리고, 고아하고 소박한 풍격을 느끼도록 하고, 또한 부귀의 본색을 잃지 않도록 하니, 이는 그것과 본분이 서로 어울려서이다. 다른 색깔의 옷은, 오염에 매우 취약하여, 조금 오염된 차나 술의 색깔이나, 약간 묻은 기름때는, 염색하지 않으면 다시 입을 수 없고, 염색하면 흰 옷이 되어버리지만, 이 색의 옷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색이 지극히 짙어서, 대저 이 색보다 옅은 것에게, 침범을 받아도 모두 느껴지지 않는다. 오로지 색이 지극히 깊어서, 이 색보다 옅은 것에, 오염을 받는 것을 사양치 않으니, 이것은 또한 신체에 어울리고 쓰임에 적합해서이다. (然靑之爲色, 其妙多端, 不能悉數。但就婦人所宜者而論, 面白者衣之, 其面愈白, 面黑者衣之, 其面亦不覺其黑, 此其宜于貌者也。年少者衣之, 其年愈少, 年老者衣之, 其年亦不覺甚老, 此其宜于歲者也。貧賤者衣之, 是爲貧賤之本等, 富貴者衣之, 又覺脫去繁華之習, 但存雅素之風, 亦未嘗失其富貴之本來, 此其宜于分者也。他色之衣, 極不耐污, 略沾茶酒之色, 稍侵油膩之痕, 非染不能夏着, 染之即成旧衣。此色不然, 惟其極濃也, 凡淡乎此者, 皆受其侵而不覺; 惟其極深也, 凡淺乎此者, 皆納其污而不辭, 此又其宜于體而適于用者也。)12)

인용문에서 이어는 청색 옷에 대해 독특한 審美眼을 가지고서, 피부색과 연령, 신분,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가 제시하고 있는 청색은 사실 검은색이다. 《한정우기》속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강희황제(康熙皇帝)의 이름이 玄燁이기 때문에 避諱하여 玄色을 靑色으로 명명한 것이다. 검은색은 가장 일반적이고 평민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는 검은 색에 대한 색채 배합의 장점을, 특히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의 예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2.3.4 시대적 미감과 情理의 추구

근래에 옷에 대한 기호는, 옛 것을 뛰어넘어, 고정 불변의 규범처럼 된 것이 있고, 또한 크게 情理를 어겨,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도리에 비추어 격정거리

12) 전계서, 124쪽.

가 된 것이 있는데,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옛 것을 뛰어넘어, 고정 불변의 규범처럼 된 것은, 부귀한 집안 사람들이, 옷 색깔에 있어 모두 청색을 숭상하는 것이다.(청색은 청색이 아니라, 검은 색이다. 피휘로 인하여, 때문에 바꾼 것이다) 내가 어릴 때 본 것을 기억하면, 젊은 여자는, 은홍(銀紅)색과 도홍(桃紅)색과 같은 연분홍색을 숭상하고, 좀 더 나이를 먹은 자는 열은 남색(月白色)을 숭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홍색과 도홍색은 모두 진홍(大紅)색으로 바뀌었고, 열은 남색은 남색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변하여 진홍색은 자주색으로, 남색은 석청(石靑)색으로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자, 석청색과 자주색은 모두 드물게 보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검은색을 입는다. 이것은 “제나라의 패도정치가 노나라의 왕도정치로 바뀌고, 노나라의 왕도정치가 공자의 聖道로 바뀐 것”처럼, 변화가 지극히 좋은 곳에 이르러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옷 색깔이 변하여 여기에 이른 것은, 결코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승벽(勝癖)이 강하여, 다른 집보다 색이 짙어지고, 날마다 깊어져서, 부지불식간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른 것일 뿐이다.(邇來衣服之好尚, 其大勝古昔, 可爲一定不移之法者, 又有大背情理, 可爲人心世道之憂者, 請并言之。其大勝古昔, 可爲一定不移之法者, 大家富室, 衣色皆尚靑是已。(靑非靑也, 玄也。因避諱, 故易之。)記予兒時所見, 女子之少者, 尚銀紅桃紅, 稍長者尚月白, 未几而銀紅桃紅皆變大紅, 月白變藍, 再變則大紅變紫, 藍變石靑。迨鼎革以后, 則石靑與紫皆罕見, 無論少長男婦, 皆衣靑矣, 可謂齊變至魯, 魯變至道, 變之至善而無可復加者矣。其遞變至此也, 并非有意而然, 不過人情好勝, 一家濃似一家, 一日深于一日, 不知不覺, 遂趨到盡頭處耳。)¹³⁾

情理에 크게 위배되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도리에 우려되는 것은, 잡다하게 기워 붙인 옷으로, 속칭 水田衣라고 하는 것이다. 옷에는 바느질한 자국이 있는데, 옛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것이다. 사람에게 는 살찌고 여위고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달라, 신체에 맞춰 옷감을 짤 수는 없으며, 반드시 온전한 비단을 먼저 짜고, 옷감을 잘라서 옷을 만든다. 이 한 뚝 두 뚝의 바느질 자국은, 사람 몸의 흑과 같지만, 결코 없앨 수 없어서, 부득이 그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선의 미묘함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필경 天衣는 바느질 흔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는, 이런 바느질 흔적의 옷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 뚝 두 뚝의 바느질 자국이, 확장되어 수십 수백 뚝이 되어, 천의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세상의 옷이라고 할 수 없는데, 추세가 더욱 심해지고 더욱 저급해지니, 장차 어떤 것처럼 되어야 그치겠는가? 그 시작을 추론해보니, 또한 뜻이 있어 만든 것이

13) 전계서, 123-124쪽.

아니다. 대저 옷을 바느질하여 만드는 간사한 장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재단하여 옷을 만들지만, 몰래 옷감을 절취하고, 절취한 것들을 숨겨두었는데, 밖으로 꺼내놓을 수가 없자, 이런 옷을 발명하여, 간사하게 팔아먹은 것이었다. 뜻밖에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니, 그 폐단을 공격하지 않고, 분분히 그것을 모방하여, 온전한 옷감을 훼손하여 조각조각 만들었다. 온전한 비단이 무슨 죄가 있어, 사지가 토막 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조각난 옷감을 바느질하여 승려의 누더기 옷처럼 만들고,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 돌연 속세를 떠나 출가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풍속의 기호의 변화는, 항상 시대의 운세(氣數)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양식의 옷은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崇貞말년에 시작되었다. 내가 그것을 이상히 여겨,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길: 옷은 이유 없이 형태를 바꾸지 않는데, 아마도 어떤 것이 그것을 조정한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재난이라도 당했으면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도적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 중원을 갈라 놓자,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불행하게도 적중했다고 했다. 바야흐로 지금은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국이 복속해 오며, 법률이 통일되어 안정된 시대에, 이런 양식의 옷은, 스스로 응당 사라지고 고쳐져야 한다. (至于大背情理, 可爲人心世道之憂者, 則零拼碎補之服, 俗名呼爲“水田衣”者是已。衣之有縫, 古人非好爲之, 不得已也。人有肥瘠長短之不同, 不能象體而織, 是必制爲全帛, 剪碎而后成之, 卽此一條兩條之縫, 亦是人身贅瘤, 萬萬不能去之, 故強存其迹。贊神仙之美者, 必曰“天衣無縫”, 明言人間世上, 多此一物故也。而今且以一條兩條, 廣爲數十百條, 非止不似天衣, 且不使類人間世上, 然而愈趨愈下, 將肖何物而后已乎? 推原其始, 亦非有意爲之, 盖由縫衣之奸匠, 明爲裁剪, 暗作穿窬, 逐段窃取而藏之, 無由出脫, 創爲此制, 以售其奸。不料人情厭常喜怪, 不惟不攻其弊, 且群然則而效之。毀成片者爲零星小塊, 全帛何罪, 使受寸磔之刑? 縫碎裂者爲百衲僧衣, 女子何辜, 忽現出家之相? 風俗好尙之遷移, 常有關於氣數, 此制不昉于今, 而昉于崇禎末年。予見而詫之, 嘗謂人曰: “衣衫無故易形, 殆有若或使之者, 六合以內, 得无有土崩瓦解之事乎?” 未幾而闖亂四起, 割裂中原, 人謂予言不幸而中。方今聖人御世, 萬國來歸, 車書一統之朝, 此等制度, 自應潛革。)14)

인용문에서 이어는 옷의 유행과 양식의 변화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항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옷의 색채에 대한 유행의 추이는 자신의 어렸을 때의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중국 복식사의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어는 옷의 유행과 양식의 변화에 있어서 두 가지 범주를 제시하

14) 전게서, 124쪽.

고 있다. 하나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옛 것을 뛰어넘어 고정 불변의 규범처럼 된 것(其大勝古昔, 可爲一定不移之法者)이고, 다른 하나는情理에 위배되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도리에 비추어 걱정거리가 된 것(大背情理, 可爲人心世道之憂者)이다. 바람직한 것은 유행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앞에서 이어는 검은색 옷에 대해 이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당시에 검은색을 좋아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검은색을 입었던 것이다. 이어는 이것을 “제나라의 패도정치가 노나라의 왕도정치로 바뀌고, 노나라의 왕도정치가 공자의 聖道로 바뀐 것처럼, 변화가 지극히 좋은 곳에 이르러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옷 색깔이 변하여 여기에 이른 것은, 결코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승벽(勝癖)이 강하여, 다른 집보다 색이 짙어지고, 날마다 깊어져서, 부지불식간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이어의 이러한 의견은 옷의 유행과 색깔의 변화 추이에 어떤 원칙이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옷은 우리 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옷이 유행하면 자연스럽게 유행을 따르고 즐기며 동질감을 느끼며 뒤쳐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유행 속에서 남과 다른 것을 또한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어가 말한 “사람마다 승벽이 강하다(人情好勝)”는 것이다. 유행에 대한 일체감과 차별성의 추구로 발생하는 변화가 바로 유행을 이끌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정리에 크게 위배된 것으로 水田衣를 들고 있다. 수전의이란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여러 조각의 옷감을 바느질로 서로 이어 붙여서 만든 옷이다. 수전의의 탄생과정을 보면 본래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非有意爲之],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몰래 옷감을 절취해 놓고, 절취한 옷감의 조각들을 서로 이어 붙여서 만들어 간사하게 팔아먹은 것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과정에서 탄생한 옷이지만,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유행의 이유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人情厭常喜怪)”, “분분히 그것을 모방(群然則而效之)” 하였기 때문이다. 분명 만들어진 과정에서 폐단은 있었지

만 옷의 유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한 밝히고 있다. 소비자는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는 옷의 유행에 있어 시대의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수전의는 본래 明나라 崇貞말년에 반란이 일어나 나라가 분열되어 혼란한 시대에 탄생한 것이었다. 여러 옷감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수전의의 양식이 과거 혼란스럽고 분열된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나라가 안정되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시대의 情理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옷의 유행은 그 시대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며, 시대의 운세(氣數)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3.5 옷의 실용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

여자의 치장은, 집안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가격이 싸면서도 기능이 뛰어난 두 가지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조끼(半臂)인데, 속칭 배자(背襟)라고 하며; 하나는 허리를 묶는 띠로서, 속칭 난새의 끈(鸞條)이라고 한다. 여자의 몸은 좁아야지(窄) 넓어서는(寬) 안되는데, 조끼를 착용하면, 넓은 자는 좁아지고, 좁은 자는 더욱 그 좁은 모습이 두드러지게 된다. 여인의 허리는, 가늘어야 하며 두꺼워서 안 되는데, 난새의 끈으로 묶으면, 두꺼운 자는 가늘어지며, 가는 자는 두 배로 가늘게 보여지게 된다. 조끼는 밖에 착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안다; 난새의 끈은 옷 안에 묶어야 적합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 모른다. 띠는 옷 안에 숨어 있으니, 비록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 허리는 본래부터 가늘고, 어떤 것을 사용해서 가늘게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婦從之妝, 隨家丰儉, 獨有价廉功倍之二物, 必不可無。一曰半臂, 俗呼“背襟”者是也; 一曰束腰之帶, 欲呼“鸞條”者是也。婦人之體, 宜窄不宜寬, 一着背襟, 則寬者窄, 而窄者愈顯其窄矣。婦人之腰, 宜細不宜粗, 一束以帶, 則粗者細, 而細者倍覺其細矣。背襟宜着于外, 人皆知之; 鸞條宜束于內, 人多未諳。帶藏衣內, 則雖有若无, 似腰肢本細, 非有物縮之使細也。)15)

치마의 정교함과 줄렬함은, 오직 접힌 주름의 많고 적음을 보면 된다. 주름이 많으면 걸어가기 편리하며, (치마가) 몸에 달라붙어 걷는데 장애가 되는 걱정이 없다. 주름이 적으면 걸어가는데 촉박하고, 질곡을 몸에 차고 있는 것 같은 형상

15) 전계서, 126쪽.

이 된다. 주름이 많으면 물결이 무너처럼 흐르듯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도 또한 나부끼듯 보인다. 주름이 적으면 딱 붙어있는 기둥 같아서 걸음을 옮기기 어렵고, 또한 나무 막대의 딱딱한 모습과 같아 보인다. 때문에 의복의 옷감은, 다른 것은 혹 줄일 수 있어도, 치마의 폭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 옛말에 “상수의 물결 같은 여덟 폭의 치마를 끄네”라고 했는데, 폭이 여덟이니, 주름 무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 폭의 치마는, 집안의 일상에 적합하며,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면, 반드시 열 폭은 되어야 한다. 근래 蘇州에서 유행하는 “주름치마[百褶裙]”는, 정말 아름답다 할 수 있다. 이 치마는 화려한 옷에 어울리며, 집안의 일상적인 것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옷의 매력이 애석하다. 옛 날 옷보다 폭을 조금 늘리고, 새 옷보다 조금 줄여, 사람 앞에서는 열 폭이 되게 하고, 집에 거할 때는 여덟 폭으로 하면, 화려와 검소의 타당함을 얻을 것이다. 蘇州에 새로운 양식으로, 또한 “달빛 치마[月華裙]”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주름 속에, 오색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하얀 달이 광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도리어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의 공력과 재료가, 보통 치마의 열 배로, 낭비를 부추기는 못된 물건임을, 말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심히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는다. 대저 신체 아래 부분의 옷은, 얇은 색이 어울리며 짙은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단순한 것이 어울리며 복잡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裙制之精粗, 惟視折紋之多寡。折多則行走自如, 無纏身碍足之患, 折少則往來局促, 有拘攣桎梏之形; 折多則湘紋易動, 無風亦似飄飄, 折少則膠柱難移, 有態亦同木強。故衣服之料, 他或可省, 裙幅必不可省。古云: “裙拖八幅湘江水。”幅既有八, 則折紋之不少可知。予謂八幅之裙, 宜于家常; 人前美觀, 尚須十幅。蓋裙幅之增, 所費无几, 况增其幅, 必減其絲。惟細縠輕綃可以八幅十幅, 近日吳門所尚“百褶裙”, 可謂盡美。予謂此裙宜配盛服, 又不宜于家常, 惜物力也。較旧制稍增, 較新制略減, 人前十幅, 家居八幅, 則得丰儉之宜矣。吳門新式, 又有所謂“月華裙”者, 一襖之中, 五色俱備, 猶皎月之觀光華也, 予獨怪而不取。人工物料, 十倍常裙, 暴殄天物, 不待言矣, 而又不甚美觀。蓋下体之服, 宜淡不宜濃, 宜純不宜雜。)16)

인용문에서 이어는 옷에 대해 상당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장은 가정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값이 싸면서도 여자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조끼와 허리띠를 제시하고 있다. 조끼[背褶]를 착용하여 몸을 여위게 보일 수 있고, 또한 난

16) 전게서, 126쪽.

새의 끈(鸞條)을 착용하여 허리를 가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인용문에서 여자의 체형의 조건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여자의 몸은 좁아야하고(婦人之體, 宜窄不宜寬), 허리는 가늘어야 한다(婦人之腰, 宜細不宜粗)는 견해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있다. 즉 옷을 입었을 때 여성의 허리는 가늘고 몸집은 좁아야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앞장의 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어는 옷의 착용에 있어서 얼굴 및 피부의 색과 옷 색깔, 피부의 결과 옷감의 질감, 신분 등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체형과 관련되어 몸집과 허리에만 한정된 것은 여성의 곡선미에 대한 남성의 관점을 피력하는 한계점으로 보인다.

이어는 여성의 치마의 정교함과 줄렬함의 판단은 주름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은 치마의 실용성과 관련되어 있다. 주름이 많으면 겉기에 편리하고, 나누기는 모양도 보기 좋다는 것이다. 그는 치마의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위해 상당히 자세하게 치마의 폭까지 제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에는 여덟 폭이 적당하고, 열 폭이 되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달빛 치마(月華裙)”와 같은 양식을 경계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 보다는 단순하고 담백한 색깔의 치마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3. 결 론

이상으로 이어의 복장관을 《한정우기》의 <치복>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그의 복장의 착용 원칙은 한마디로 “용모와 어울리게 입는 것(與貌相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한 이해의 전제 조건으로 이어는 먼저 옷에 대한 올바른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옷은 단순히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문화적, 예술적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옷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안목은 오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생기며, 그런 후에야 예술적인 경지에서 이르고 향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옷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이다. 옷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사람이 주체라는 관점이다. 옷은 입는 사람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옷의 아름다움은 옷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주체는 옷을 입는 사람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옷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衣以章身)”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身이란 단순히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의미하며, 때문에 동일한 옷을 입어도 입은 자의 지혜[智], 현명[賢], 불초함[不肖], 부귀함[富貴], 빈천함[貧賤] 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내면의美는 외면적인 옷의 장식에 좌우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옷 자체가 갖고 있는 裝飾美의 기능을 간과한 면이 있지만,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모에 어울리게 입기 위해서는 옷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목이 필요하며, 자신의 외형만을 위해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여 옷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용모와 어울리게 입는 것(與貌相宜)”의 대전제 아래 얼굴색, 피부결, 옷의 색깔과 질감 등의 요소를 근거로 다양한 각도에서 옷의 착용을 미학적으로 이어 분석하였다. 색깔의 배합에 따른 옷과 사람과의 조화와 아름다움의 추구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고, 함께 모방하여 어울리면서도 차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性情으로 옷은 유행하고 저절로 변화 한다는 그의 언급은 옷의 유행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明末과 淸初시대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언급한 것은 중국 복식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조끼와 난새의 끈(鸞條)을 활용하여 여성의 곡선미를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주름치마의 실용성에 대한 분석과 강조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가치와 의복의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어의 옷에 대한 원칙은 옷과 사람과의 조화와 실용성과 경제성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어의 복장에 대한 인식

과 감각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복식에 대해 견해를 서술한 것은 분명 온전하지 못한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보면 복장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이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李漁 著, 《閑情偶寄》, 淡江書局印行, 1956.
- 中國戲曲研究院 編,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10冊), 1980.
- 杜書瀛 著, 《論李漁的戲劇美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 杜書瀛, <《閑情偶寄》在我國戲劇美學史上的價值>, 《文史知識》, 1984, 第12期.
- 《李漁全集》(20冊), 浙江古籍出版社, 1989.
- 章培恒 主編, 《十代戲曲家》, 上海古籍出版社, 1990.
- 김영자 지음, 《한국의 복식미》, 대우학술총서 64, 민음사, 1992.
- 黃麗貞 著, 《李漁研究》, 國家出版社, 1995.
- 李漁 著, 《閑情偶寄》, 天津古籍出版社, 1996.
- 馮盈之 著, <“潔, 雅, 宜”——略論李漁對於女子服飾的審美理想>, 《寧波大學學報 第18卷第4期》, 2005.07.
- 鍾艷如 著, <從《閑情偶寄》中看現代女性的儀容之道>, 《文學評論輯》, 2012.04.
- 李玉婷·李靜 著 <試論李漁《閑情偶寄》衣衫中的服裝觀點>, 2012.
- 李勝清·謝曉蘭 著 <由《閑情偶寄》看李漁的服飾美學觀>, 2012.
- 줄고, <李漁의 劇團活動과 戲劇理論 小考>, 《中國文化研究21輯》, 2012.12.
- 줄고, <李漁의 女性觀 小考>, 《中國文化研究31輯》, 2016.02.

< Abstract >

Study on Li Yu's Dress Ideology

Park, Sung-hun

Li Yu, who lived between Late-Ming Dynasty and Qing Dynasty, was a famous drama theorist, writer, thinkers, aesthetician in Ming and Qing Dynasties. "Xian Qing Ou Ji(《閑情偶寄》)"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in his life. Li Yu's "Xian Qing Ou Ji" has been paid attention since being published. The discussion of its opera theory in certain chapters in which Ciand Qu Department(<詞曲部>), Exercise and Performance Department (<演習部>), and Voice and Appearance Department (<聲容部>) is fine and original, insightful and they have a far-reaching impact. Li Yu's thought of dress aesthetics is mainly concentrated in Voice and Appearance Department (<聲容部>). From the dress ideology in "XianQing Ou Ji", with times and environment which this book is published and author's special life experience. The full tex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oreword, text, and conclusion. The foreword mainly introduces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s for this article, the research angle. Beginning with the problems he put on dress is of rich and deep the classical dress aesthetics. In his thoughts, human plays a leading role in dressing. Dress will never be independent system beyond body. It is beautiful only when it is matched with skin color, figure, and social status. In Li Yu's opinion dress ideologies are natural and harmonious. According to his views, beauty lies in naturalness. The more nature the women appear to be when they're wearing the clothes, the more beautiful they are. What's more, this beaut still can properly conceal the fault of the women dressed, which make more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women's natural beauty. Also he proposed a principle on ladies elegant and fit made an aesthetic analysis of black color. Li Yu especially

admired the color of cyan, which he thought was proper for the rich or the poor, the old or the young, the dark or the fair skin. From the whole view his dress aesthetics are moderate and harmonious and natural. The conclusion excavates Li Yu's unique contribution to the dress aesthetics theory.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dress ideology theory in "XianQing Ou Ji" and explores its influence on the dress theory of later generation and points out its limitation.

Key words: Li Yu, dress ideology, naturalness, Xian Qing Ou Ji(閑情偶寄), Occasional Leisurely Lif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8. 28.	2017. 09. 23.	2017. 09. 30.

